

| 위원회 활동 |

『플랫폼산업위원회』 신설, 공공기관위원회 2기 의결 문성현 위원장 “대전환 시대 맞아 사회적 대화 흔들림 없이 간다”

6월 7일(월) 위원회 대회의실서 제10차 본위원회 개최

이세종 경사노위 전문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 이하 경사노위)는 6월 7일(월) 16:00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0차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플랫폼산업위원회』 신설 등 4개 안건*을 심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4개 안건: ① ‘플랫폼산업위원회’ 구성·운영(안), ② ‘공공기관위원회’ 운영 재가동(안), ③ ‘관광산업위원회’ 운영 연장(안), ④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그간 본위원회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해 서면회의로 대체되다, 이번에 11개월 만에 처음 대면회의로 개최됐다. 그동안 다양한 유형의 플랫폼 산업에서 제기되는 과제와 고용위기가 계속되는 관광산업의 발전 및 종사자 숙련유지 등을 다룰 회의체 발족과 연장 등 안건을 실무단위와 차관급 회의에서 논의해 의견을 모았고, 이날 최종 추인했다.

제10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2021. 6. 7.(월)



경사노위는 작년 봄부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자는 노사정 공감대 속에서 노사정 선언(3.5선언)과 노사정 협약(7.28협약)을 차례로 의결한 바 있다. 이후 위원회는 호텔·항공·플랫폼 노동·자동차 부품 등 코로나19 위기업종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을 건의하여 실행된 바 있다. 입법적 불비 사항이던 ‘근로자대표제’에 관한 개선방안에 합의하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임금제도 개편을 위한 원칙에 합의하는 등 의제논의에서 굵직굵직한 성과도 냈다.

또한 사회적 대화 참여주체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로 발족시킨 청년·비정규직·여성·소상공인 위원회 등 계층별 위원회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논의는 물론 구조적인 계층의 문제를 다루는 등 활발히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오고 있었다.

다만, 올 초부터 의제 선정과정에서 참여주체들의 불참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양극화 문제에 더해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고령화’ 등 대전환 시대를 맞아 노사정이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도출했고, 이날 본위원회를 기점으로 사회적 대화가 다시 활기를 띠게 됐다.

신설 『플랫폼산업위원회』는 작년 배달업종 분과위에서 논의하던 의제를 확장하여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경제 활성화’는 물론, ‘노동종사자의 기본권 권리 보호’와 ‘투명하고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2기 공공기관위원회는 이번 의결로 공공기관의 임금제도 및 임금피크제를 주요 논의 의제로 후속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관광산업위원회도 회의기간이 연장되어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정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문성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경사노위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문제 해결 등 남은 임기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고, 대전환 시대를 대비하는 사회적 대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본위원회에 새롭게 위촉되어 처음 참석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취임 후 많은 계층과 만나 가장 많이 듣고 있는 키워드가 ‘소통’이라며, “기업의 목소리를 전달하겠지만 다른 주체들의 생각도 듣는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최 회장은 “코로나

로 인해서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각자의 파이를 키우는 것 보다는 파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대화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동명 위원장은 “작년 연말부터 4월까지 사회적 대화가 중단됐었고, 정부의 관심도 낮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항공산업, 교원, 공무원 등 사회적 대화를 원하는 곳이 많지만 정부부처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며, “법정 사회적 대화기구를 정면으로 부정해서는 안 되며, 정부가 술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총 손경식 회장은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노사관계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면서, “노사의 다양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동반자적 관계와 공정하고 균형 있는 노사관계 설정을 위해 경사노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근로시간 면 제한도도 공정하고 균형감 있게 심의되기를 바라고, 부당노동 행위 형사처벌, 해고자와 실업자 기업노조활동, 파업 시 대체근로 보완 입법도 조속하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상임위원을 지내다 고용부 장관으로 취임한 안경덕 장관은 “정부는 어려운 경기가 회복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로 심해진 격차를 줄여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노사정이 풀어가야 할 과제가 산적한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본위원회를 계기로 경사노위는 노·사·정 및 다양한 계층 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고령사회 등 미래의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사회적 대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안전한 여름휴가 보내기 노사정 협력 결의

“휴가 분산은 노사정이 만드는 백신입니다” 안전한 휴가 약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6월 14일(월)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안전한 여름휴가 보내기 노사정 협력 결의」 선언식을 개최하고 노사정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여름휴가 분산에 최대한 협력키로 했다.

노사정은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확산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는 휴가철 방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런 취지에 따라 노사정은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여름휴가 대책에 발맞춰 노사가 여름휴가 시기 등을 최대한 분산 실시하여 방역수칙이 지켜지도록 산하 조직과 회원 기업에 적극 권장한다”는 내용을 결의문에 담았다. 정부는 특히 분산 운영이 우수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도 적절히 제공키로 했다.

경사노위 배규식 상임위원은 이날 선언식의 대표자로 나서 “최근 정부에서 여름휴가 시기와 장소 분산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시대, 편안하고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이 보고된 바 있었다”며, “정부가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원하고 작년 7월 28일 체결한 협약에도 정부의 방역지침에 노사가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이 있었던 만큼 긴급 논의를 통해 오늘 결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선언식에는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1처장, 남용우 한국경총 상무, 박재근 대한상공의소 상무, 이대희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안전한 여름 휴가 보내기 노사정 협력 결의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피로감과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곧 여름휴가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최근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는 500~600명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으나,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계획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조속한 일상 정상화와 경제 회복을 위해 노사정은 이번 여름휴가철 방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이에, 노사정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20.7.28) 중 “노사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력하며, 감염병이 사업장에 전파·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 내에서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하도록 산하조직과 회원 기업을 적극 독려한다”의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동 노력한다.

1. 노사는 안전한 휴가를 위해 6.7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시대, 편안하고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에 적극 협력하며, 감염병이 전파·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름 휴가 시기 및 장소 분산 등 방역수칙이 지켜지도록 산하조직과 회원 기업에 적극 안내한다.

2. 정부는 「코로나19 시대, 편안하고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업 노사에 대해서 간담회 등을 통해 휴가 분산을 적극 요청하며, 분산운영 우수기업에 대해서 제공하기로 한 인센티브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3. 노사정은 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고용 유지, 취약계층 보호·지원을 위한 정부 역할을 제고하고, 노사정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20.7.28)'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여 코로나19로부터 일상 회복을 위해 적극 실천한다.

2021년 6월 14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 대표